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15일

2019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경청과 공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교육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동부연회 감독 / 교육국 위원장 최선길	3
인사말씀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노덕호	6
설 교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교육국 위원, 동인천 교회 담임목사 이충호	8
주제해설	공감, 경청, 그리고 배려의 대화의 기독교교육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총장직무대리 오성주	13
예배자료	“86주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 기획과 실제 교회교육전문가양성센터(CTC) 강사 유명화	16
교육자료	속회 : 대화와 돌봄의 소모임 공동체로 전환 교회교육전문가양성센터(CTC) 강사 최임선	25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의 방법 양광교회 교육목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박미경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의 대안 - 성서놀이 (BiblioPLAY) 성서놀이/BibiloPLAY 연구소, 나무밀그늘 남혜주	32



목회서신

동부연회 감독
교육국 위원장
최 선 길

교육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 님의 은혜가 7천 감리교회 150만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여름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지구가 유난히 달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가운데 건강하게 살게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를 본부 교육국 국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국위원장으로 본부 교육국에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업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전국 감리교회 교회학교가 교육국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 86회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감리교회는 매년 9월 셋째주일을 기독교교육진흥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말 그대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1년 365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뽀엿교육이니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니 하며 참 바빴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전에는 장년층을 놓고 공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예배 후 분반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웠으며 그것을 통해 교사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모



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감리교회는 덩치는 크지만 모두 다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가 부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 집니다.

둘째, 리더교육과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은 교사 훈련을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도회, 교사대학 등을 끊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물론 청년, 대학생도 성경공부를 해야 하며, 속회도 속장 및 속회인도자 기도회 그리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리더 교육을 실시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일 중의 하나가 교회학교살리기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부연회는 금년 연회기간동안 교회학교 부스를 설치하여 교회학교 부흥사례를 연회원들이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 10월 26일(토)에는 속초, 강릉, 동해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살리기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도를 잘 하는 분을 강사로 선정하여 전도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본부 교육국, 동부연회본부 그리고 동부연회교회학교연합회가 연합, 협력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연회나 지방이 이런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늘 해왔던 일만을 고집한다면 교회학교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합시다.

셋째, 경청과 공감 실현입니다.

요즘은 어른과 청소년간의 생각과 개념의 차이가 큼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단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는 그들을 공감해 주는 마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

금년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주제를 [경청과 공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생활태도는 물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주제를 [경청과 공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생활태도는 물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면 자연
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개체교회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기독교교육의 위상
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 출산과 교회학교에 대한 소홀로 교회학교가 점점 감소되는 시점에 전국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기독교교육을 진흥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하나 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에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까지는 몸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실 때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눅 2:52)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상실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지식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영아부에서 노년부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 질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은 더욱 중요합니다. 해마다 기독교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진흥주일을 지키자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는 하지만 돌아서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나 각 기관에서 보면 교육보다는 선교, 친교, 봉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선교, 친교, 봉사 등 이외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CCC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첫째 C는 concern(관심)입니다.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C는 care(돌봄)입니다. 관심이 출발이라면 그 다음은 돌봄의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은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 C는 character(인격의 변화)입니다. 관심과 돌봄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교육과 미래세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 봅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실행해 봅시다. 교육국은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공과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실시하도록 교재는 물론 프로그램까지 제공

본부나 연회, 지방 차원에서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수십 번 한 들 목사님이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개성이 강하여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제공하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감리회가 구성한 교육 시스템을 자꾸 무시하면 교회는 사분오열되거나 내 것이 아닌 타 교파의 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해 집니다. 교회는 또 교사 양성에도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살기 위해서는 또 목사님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본부나 연회, 지방 차원에서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수십 번 한 들 목사님이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주제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주제로 한 동기는 단절 때문입니다. 요즘은 특히 부모와 자녀, 교회학교와 기성세대, 교인과 목사님 간의 단절 현상이 너무 짙어보입니다. 이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경청과 공감으로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019년 제86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교

교육국 위원
동인천 교회 담임목사
이 충 호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 에스겔 7:1-4

「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기독 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교육이란 단어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교육은 자연이나 식물 동물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태풍은 산들바람에게 큰 바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10년 된 배나무가 갓 심겨진 배나무 묘목에게 이 밭은 오른쪽으로 햇볕이 잘 드니 가지를 오른쪽으로 뻗으라고 할 리도 없습니다. 동물은 좀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며 어떤 군견은 실종되었던 소녀를 찾아내어 맛있는 간식을 포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기한 동물의 능력을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훈련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교육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서는 교육이란 단어를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라고 설명함으로써 교육은 인간에게 한정되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주신 분,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분도,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만난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86회를 맞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분께 잘 배운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와 만나는 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의지한 주변 국가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은 오늘

모든 역사와 사건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이라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극심했고(22-24절) 물질이 궁핍했던 시대입니다.(17-21절) 교만과 폭력(10-13절)으로 얼룩진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귀를 막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열방의 나라들의 유행을 좇아갔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던 때 그들의 나라는 이미 두차레나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도록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2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노라 안심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돌아갈 날이 곧 올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계략이나 모사로 하나님의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시간을 모르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이제 아침이냐고 묻습니다. 아이에게는 자고 일어났으면 아침이 오는게 당연할지 몰라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이 모든 역사와 사건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이라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자본, 힘, 지도자와 백성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읽으며 때로는 선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판단이 그분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를 물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삶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3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모든 가중한 일에 대하여 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가장 노여워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맨 처음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언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고 외면했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20절)와 사회적 악행(23절)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지금 우리의 많은 관심과 시간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사람도 심판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에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은 재판정에서 내리는 판결과 형벌과 같이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 줍니다. 그런 인간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알리길 원하셨던 것도, 심판 받을 걸 알고 두려움에 떨길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엇이었을까요? 불순종에 대한 진노였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번만 더 그럼 혼난다” 어린시절 엄마의 경고처럼 자기 백성을 향해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바로 서도록 가르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4절)

에스겔에서는 ‘너희가(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말씀이 무려 70회 가량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을 제거하고(겔6:6-10)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겔36:38). 에돔 족속에게는 땅의 황폐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겔 35:15). 애굽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재앙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출7:35).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수 2장).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두로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 여인은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은혜 입기를 원했던 이방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7:3절)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알리길 원하셨던 것도, 심판 받을 걸 알고 두려움에 떨길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기는 이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는 감동합니다. 에스겔 7장에서 계속 세 번 이상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도다, 행위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끝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분의 사랑, 행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섭리와 훈계로 가르치시며 기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 내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독교교 육진흥주일을 맞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좋은 교사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해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총장직무대리
오 성 주

공감, 경청, 그리고 배려의 대화의 기독교교육

오늘 날 과학기술혁명시대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문화는 삶의 변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의 디지털문화는 더 이상 과거시대의 형태와 같지 않다. 모던시대처럼 정해진 규칙과 개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함축적인 이미지와 상징매체 사용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과 무질서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 분방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 기성세대가 아무리 온라인 정보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미래 젊은 세대들의 변화하는 문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어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한계가 있듯이 기성세대는 인터넷 사용에서 젊은 세대와 비교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세대의 디지털문화는 그들의 삶의 이해와 상상력을 초월해 있다. 이미 상징과 축약된 기호들의 사용을 주로 이루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세대들의 언어매체는 부모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호관계 단절과 대화 불통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합성어들을 생산하며 사용함에 따라 그들 만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자유분방한 담론생성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화된 상황에서 아날로그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담고 있는 성서를 바탕으로 교사와 만남 속에서 대화와 경청을 하며 깊은 이해와 묵상을 통해 성령체험과 하나님의 만남과 관계를 풀어 가야하는 기독교교육은 실로 절망적이며 위기에 처해있다. 점점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상호 대면하여 깊은 대화 나누기를 기피하며, 축약된 그들만의 텍스트 문자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미래세대의 문화적 삶의 변화는 새로운 대화법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상호 공감과 경청, 그리고 배려의 대화를 이끌고 가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교육하기 이전에 학생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의사소통을 생각해야 하며, 미래세대의 디지털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자구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물론 너무도 멀어져 버린 서로 간의 관계두절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단시일에 인스턴트식의 만남으로는 이야기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형성을 위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감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사실 바쁜 생활 속에서 학생들과 여유 있게 몸을 부대끼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상호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만남과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상호존중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며 상호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들의 문화적 간격을 단시일에 온전히 메울 수는 없겠지만 경청을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서로 다름을 인내심으로 견디며 교사들이 ‘초월’에서 ‘다가감’으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과거 세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성서어로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과 경청, 그리고 배려의 대화중심의 기독교 교육방법은 아직 과거세대 속에 살아 남아 있는 중요한 삶의 언어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줄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이다. 신앙의 감수성, 사람들끼리 서로 몸을 부대끼며 느껴온 수많은 내밀한 이야기들.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부재한다. 모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얻어내는 우리 학생들은 밤낮을 무릎 꿇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세대의 간절함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라면 우리 세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만큼 훌륭한 정보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교육은 만남 속에서 공감과 배려의 대화를 통해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교육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라면 우리 세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만큼 훌륭한 정보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교육은 만남 속에서 공감과 배려의 대화를 통해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이란 단순히 정보가 축적된 덩어리가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때론 참고 기다릴 줄도 알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온라인 정보통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세대에 전달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 어쩌면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분야의 교육이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독교교육이 서로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소통의 장, 만남과 관계의 장이 되길 기도한다.



“86주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 기획과 실제

현대인은 시간은 자기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자신의 일정을 짜거나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시간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을, 시간을 새롭게 빚어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¹⁾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한 주의 첫 날을 주님과 함께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는 날이며 시간입니다. 올 해 86번째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자 했던 처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교육에 새로운 격려를 불어넣습니다.

올 해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말씀은 예레미야 4:11~12, 22~28, 시편 14, 디모데전서 1:12~17과 누가복음 15:1~10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잃음과 찾음”의 대비 속에서 잃어버렸다가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은 목자와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초대합니다. 교회현장의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추스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으로 늘 탈진해 있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본문에 나오는 잃은 것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환대를 베푸는 입장 보다는 소외된 자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도덕적 율법으로 바꾸고, 살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예식에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 채로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가고자 말씀(토라)을 힘을 다해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모든 죄, 특히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무관심 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에 따른 교독문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이 쉼마를 실행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있던 것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두 가지 비유 속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compassion)은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과의 기쁨의 잔치로 이어집니다.²⁾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눈이 향할 곳은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뻗어나갈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귀향하는 자들과의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이사야 40:11)” 분이십니다. 교회의 가르치는 자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양떼들 만을 자신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까지도 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appollumi)는 단순히 길에서의 이탈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파괴되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내 양을 찾고 찾되...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시는” 목자(겔34:12),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며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정의대로 잃어버린 양들을 먹이시겠다”(겔34:16)는 목자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올 해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셔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축제 같은 예배로 드러지기를 기대하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영광스런 행위임을 선포하는 예배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모든 죄, 특히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무관심 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에 따른 교독문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이 쉼마를 실행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동기도는 오늘의 기도라는 순서에서 부모가 복음에 입각하여 자녀들 양육을 위해 드리는 마더와이즈의 기도문과 자



녀들을 위한 웨슬리의 기도문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에 맞도록 준비했습니다.

교사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나 연극도 좋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발견되기를 중보하는 기도순서를 결단의 시간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르치는 자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기억되고 중보 기도를 드린다면 이 모든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가르침의 사역에 함께 나아가기로 온 교회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독교교육은 특정한 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본래적 사명임을 기억하는 2019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올 해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를 품은 연민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을 축복하는 기쁨이 넘치는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86주년 기념예배

1. 예배드리기 전 준비

- * 교회력에 따른 강단 장식은 녹색입니다. 강단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었던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으로 장식을 하도록 합니다.
- * 광고시간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양과 목자 그림이 있는 두 종류의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모을 수 있는 바구니를 준비해서 설치해 둡니다.
- * 예배 중 기도문과 성서 읽기, 교사를 위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정하고 준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르치는 자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기억되고 중보 기도를 드린다면
이 모든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2. 예배순서

〈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

예 배 집 례 ○○○ 목사

* 입 장 인도자와
예배 봉사자들

* 예 배 부 림 **인도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이십시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배
웁시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합니까? 집 례 자

회 중: 아멘!

인도자: 악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회 중: 오직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가겠
습니다.

* 경 배 찬 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95장) 다 함 께

* 죄 의 고 백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
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
이 주신 생명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 함 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
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
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
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용서의 말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은 후)

집 례 자

인도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1: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회 중: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 교 독

(112번
교회교육
주일)

인도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다 함 께

회 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도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회 중: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인도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회 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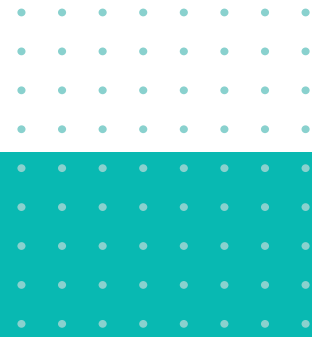
인도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회 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1-5)

* 삼 위 영 가

성부 성자와 성령(4장)

다 함 께



오늘의 기도

(각각 부모와 교사 대표가 신앙의 교육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순서대로 드린다.)

말 은 이

〈부모 대표로 부부가 자녀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남으로 유익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영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맡겨진 일과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갖게 하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게 되게 하시되 또한 자신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머니: 선하고 바른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소서. 정욕대로 사람을 사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배우자를 얻게 하소서. 배우자와 더불어 자신을 정결과 순결함으로 지켜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사단에게는 온전히 대적하는 힘을 주소서.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성령의 율타리를 아이들에게 돌려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³⁾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드리는 기도〉

대표교사: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저의 영혼에 부어 주소서. 제가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과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나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 진실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요한 웨슬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⁴⁾

기도응답송

찬 양 대



〈 말씀의 선포 〉

* 성서 봉독

- 구약 : 예레미야 4:11-12, 22-28
- 신약 : 누가복음 15:1-10

- * 구약 : 학생 대표
- * 신약 : 청장년 대표

* **신약 복음서 봉독 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회중:**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 송 찬 양 대

설 교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주제에 따라) 집 례 자

합 십 기 도 (주신 말씀에 대하여 침묵으로 응답 기도를 드린다) 다 함 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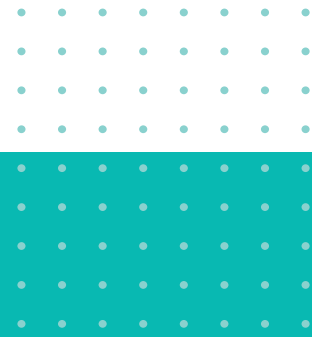
〈 감사와 응답 〉

신 앙 고 백 다 함 께

* 찬송과 봉헌 나의 생명 드리니(213장) 다 함 께

봉 헌 기 도 다 함 께

성찬 〈예식에 따름〉



〈세상으로 나아감〉

교 회 소 식

1. 한 해 동안 가르치는 일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에 참석한 교사들을 강단으로 불러서 소개하고 축복의 기도 또는 찬양을 통해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단순히 교회학교 교사들 외에도 가르치는 모든 일을 하는 목회자와 양육자들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가르치는 사역의 기쁨을 온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친 후 준비된 양과 목자 모양의 종이와 펜을 나누어 준다. 양 모양의 종이에 '잃은 양을 찾으신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한다. 목자의 모양을 한 다른 종이에 중보 기도할 교사의 이름을 적는다. 두 종이를 예배 후 나가면서 준비된 바구니에 모은다. 교회가 정한 기간 동안 교회 게시판에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게시해서 온 교우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집 례 자

* 찬 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569장) 다 함 께

*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 인도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회 중: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달콤하여 꿀보다 더합니다!
회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과 지도력의 은사를 받은 여자와 남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들: 우리를 가르침의 사역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사역에 우리를 헌신합니다.
인도자: 하나님,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들이 당신을 섬길 때 기쁨이 더하게 하소서.



청장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소서.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그 곳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함께: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⁵⁾

* 파송의 말씀

인도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주신 형제자매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양떼를 찾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집 레 자

회 중: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 축 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 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 후 주

반 주 자

* 표시가 있는 곳은 일어났다.

1) 제럴드 싯처, 신현기 옮김, “리듬: 수도원 운동의 영성,” 『영성의 깊은 샘』 (서울: IVP, 2007), 145-178.

2) Thomas Constable, Expository Note on Luke, <https://www.studylight.org/commentaries/dcc/luke-15.html>

3) 마더와이즈, “자녀들을 위한 성경적 기도,”를 수정한 것임.

4) John Wesley, “Prayers for Children,” quoted in Wesley’s Daily Prayers(1772), Edited by Donald E. Demaray, published by Bristol House, Ltd., 1998), 119.

5) UMC Christian Education Week 2018 “기독교 교육자와 지도자와 배우는 자를 위한 헌신의 기도” 수정한 것임.



속회 : 대화와 돌봄의 소모임 공동체로 전환

속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말씀을 전달받는 시간이었고, 그 후 친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교우들은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젊은 층들의 속회 참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젊은층들이 물리적인 여건으로 속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가능하다는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익성이 속회 모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속회가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모임이라면 이제 이 소모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할까?

사람들은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간다.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등 살아가는 일이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역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후 그들은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고, 문제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속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이야기(눅 24:13-34)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훌륭한 교육방법을 배워 볼 것이다. 이것은 활력 있는 속회를 만들어가는 속회 진행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안고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24:15-16).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요청한다(24:18-24). 그리고 문제의 원인, 즉 현재의 행동을 만든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한다(24:25-26). 그런 뒤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성경이야기를 들려준다(24:27).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두 제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자신들이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졌다. 아



직도 제자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하며, 말씀을 가지고 더 대화하기 원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했다(24:29).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계속 대화한다(24:30). 이럴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된다(24:31). 마지막 결론은 이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온 자리가 비전의 자리임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24:33)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목적과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교육은 지식을 축적하는 학교식 방법이 아니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교육이 시작되었고, 신앙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토머스 그룹은 자신의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몫을 나누어 참여하는 기독교적 실천”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교육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토머스 그룹의 교육방법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본다. 그는 ‘현재의 행동, 비평적 성찰, 대화,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부터 생기는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을 교육의 요소라고 본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행동은 의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든 행동을 말한다. 비평적 성찰의 대상은 현재의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실재이다. 비평적 성찰에서는 이제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더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지각되었던 것을 비평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현재의 행동의 원천인 망각된 과거의 기억을 다시 점검한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며 창조적 상상을 통하여 미래를 제시한다. 교육이라는 단어(education)가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육에서 상상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토머스 그룹은 대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몫을 나누어 참여하는 실천에서의 교육방법이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성찰

속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속회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비평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며, 더나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도록 돕는 속회를 원할 것이다.

적 이야기들과 비전들에 대한 표현함과 들음을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화는 참가자들과 동시에 하나님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신앙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의 사건들과 구체적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행동하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더나가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행동에 대한 비평적 성찰은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의 빛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 토마스 H. 그롬 《기독교적 종교교육》)

속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속회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비평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며, 더나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도록 돕는 속회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성서로부터 얻기를 원하고, 성서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더나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으로 현재를 변혁시키려고 힘쓰는 속회를 원할 것이다. 이런 속회가 된다면 속회는 무엇보다도 활력 있는 소모임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속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소모임이라는 여건은 이런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교재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좀 더 연구하여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도를 감당하도록 지도자를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회안의 속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젊은층도 속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체인 속회를 활력 있는 공동체로 세우면 교회와 교인 모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의 방법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 속담에도 말의 중요성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심령을 상하게 할뿐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외국에 나가 생활을 하다보면 모국어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때가 그리워지고 그렇게 말할 기회라도 얻게 되면 숨통이 트이는 듯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언 18장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에게 막말하는 자를 참기 어려워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혀의 권세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왜곡된 말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방송에서는 걸리지 않은 거친 말들이 그대로 전파를 탑니다. 우리의 입이 거칠어진 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의 대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학자의 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독일출신의 유대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인간의 언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언어, 아담의 언어, 타락이후 인간의 언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로 기능하고, 아담의 언어는 이름 짓는 언어로, 타락 이후 인간의 언어는 판단의 언어라고 해석합니다. 사물에 일치하는 이름 언어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경쟁 상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언어에서, 사물에 적합한 이름을 짓는 아담의 언어로,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남을 판단하는 타락 이후 인간의 언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판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언어에서, 사물에 적합한 이름을 짓는 아담의 언어로,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남을 판단하는 타락 이후 인간의 언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판단의 언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단게 만드는 대화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싶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단게 만드는 대화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했다고 암시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화의 단절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한 강요나 당연시 하는 것 역시 내면에 우울감이나 분노를 쌓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언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는 삶의 시작에서 있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다음 세대와 연결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난 자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각자의 판단, 추리, 생각, 추측, 선입관 등의 평가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할 때 평가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비난한다고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세밀히 살펴보고 본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항상, 때번, 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과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다섯 번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와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는 또 게임이니?” “너는 오늘 세 번째 게임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느 말을 듣고 싶습니까?

둘째,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립시다.

이는 공감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느낌이란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부드러운 정서적 관



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 뒤에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속에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 아이가 혹은 학생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내면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욕구는 지역과 나이,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느낌을 말할 때 생각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져.”가 아니라 “네가 청소한 상태를 보니 화가 난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은 느낌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순수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부탁합니다.

부탁이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한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경우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명령형으로 하기 보다는 권유나 질문의 형태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처벌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강요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수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대화 환경이 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용납되기를 원하는 것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부드러운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 뒤에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속에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 아이가 혹은 학생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내면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 같습니다. 따라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과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 요구되며, 강요나 명령이 아닌 권유하는 부탁의 말이 서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의 대안-성서놀이(BiblioPLAY)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교육 전문가들에게 있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교육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서로 중심을 찾고 삶을 일구어 가도록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은 현재 교육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또 동시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딸 아이를 키워온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18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던중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10년 전 알게 되었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과정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심리학 중심의 비블리오드라마로부터 성서 교육 중심의 성서놀이/BiblioPLAY라는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경험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성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성서놀이/BiblioPLAY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성서놀이/BiblioPLAY는 성서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성서의 텍스트가 성서놀이/BiblioPLAY의 시작이고 끝이다. 성서놀이/BiblioPLAY는 성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져와 새롭게 경험하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성서놀이/BiblioPLAY의 시작은 항상 성서를 읽는 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역시 성서를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성서놀이/BiblioPLAY는 혁신적이다.

기존의 교육은 권위있는 교역자 혹은 교사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우리 삶 속

성서놀이/BiblioPLAY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각 개인의 직관적, 감성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서 속 이야기를 마주하여 그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양하고 풍성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한다.

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성적인 노력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성서를 암송하고 성서 이야기를 분석, 해석하고 개인의 경험 속에서 그 진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성서놀이/BiblioPLAY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각 개인의 직관적, 감성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서 속 이야기를 마주하여 그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양하고 풍성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한다. 성서놀이/BiblioPLAY 인도자는 진행을 돕는 사람 일뿐 해답을 주거나 인도자의 의도적인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성서놀이/BiblioPLAY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열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3. 성서놀이/BiblioPLAY는 경험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성적인 성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성경 공부와는 차별적으로 성서놀이/BiblioPLAY는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감각, 생각을 가지고 성경 속 이야기를 마주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몸으로 조각을 만들어보거나 혹은 팀으로 작품 만들기)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4. 성서놀이/BiblioPLAY는 관계적이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느낌과 감정, 생각들을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하는 법과 포용력을 몸에 익히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로가 함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현실을 깊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독특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5. 성서놀이/BiblioPLAY는 과정 자체의 배움이다.



성서놀이/BiblioPLAY는 인도자에 의한 의도된 특별한 교육적 목적 없이 진행된다. 성서 이야기와 연계되는 다양한 활동은 참여자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마주하도록 도울 뿐 그것을 통한 어떠한 정해진 교육적인 효과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대화나 혹은 침묵으로 주고 받음으로 나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때로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성서놀이/BiblioPLAY는 각자의 경험이 함께 나누어지는 과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

6. 성서놀이/BiblioPLAY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성서놀이/BiblioPLAY는 인도자 중심의 일편적인 성서 해석으로 진행되는 기존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참여자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진행이 되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룬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누어 질수록 각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정과 느낌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를 초월하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생각이 그들을 이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질적이기 보다는 서로의 대화 속에서 조화롭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확장되고 내면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나누는 믿음과 신뢰를 몸으로 배운다. 이러한 배움의 새로운 경험은 놀이처럼 기쁘고 즐겁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성서놀이/BiblioPLAY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시작된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고 함께 자유롭게 고민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며 새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무밑그늘 모임에서 매주 꾸준한 성서놀이/BiblioPLAY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이론이

성서놀이/BiblioPLAY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시작된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고 함께 자유롭게 고민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며 새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중 한 참여자의 경험을 이 글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한다.

물론 비블리오플레이가 유일하고 확정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믿는다. 다양한 사람들의 성서놀이/BiblioPLAY를 통해 보다 넓고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 역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본인과 같은 고민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의 성서놀이/BibiloPLAY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성서놀이/BiblioPLAY의 특징들이 어떻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좀 더 깊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전하셨다.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중략]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건너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건너서 나갔다.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당시의
나는 꽤 긴 시간
동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막막해
하고 있었습니다.



간자의 자리에서 텍스트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끼면서 읽고,



선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사이에, 성경속의
이미지들은 내 안에 더 선명하게 나타났고
성경 속 인물들의 마음이 내 안에 더 깊게
다가왔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음으로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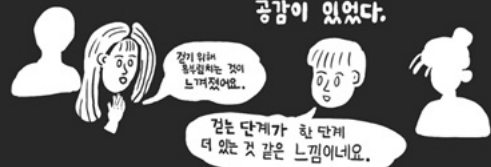
아침내, 그는 어떻게 걸었을까?
나는 어떻게
걸고 있었을까?



필사적으로 걸지만
걸고 싶지만 결국
있는 힘을 다 해
기어가고 있는 나.

‘걸지 못하는 걸음’을 몸으로 표현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풀어짐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



어쩌면 표현해 놓고
다소 민망할 수도 있었는데...
내 느낌이 지지를 받았다고
느꼈다.
안전함, 약간의 포근함



